

국내 동정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발표회' 개최

27일과 28일 이틀 간 10개 분과에서 549편의 논문 발표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시환)는 원자력에 관한 학술 발전 및 산·학·연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추계학술발표회 및 제38회 총회'를 10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이틀 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의 개최 첫날인 27일에는 제38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고, 곧이어 박창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의 '원자력으로 만들어 가는 Clean Korea'와 외무부 이시영 대사의 '북한 핵문제의 도전과 기회 : 6자회담 공동성명의 평가와 전망'에 관한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27일과 28일 이틀 간에는 원자로기

술 분과, 원자력안전 분과 등 총 10개 분과에서 54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행사에 앞서 김시환 원자력학회장은 "국내에서 열리는 원자력계 연례행사 중 최대 행사로 손꼽히는 이번 학술발표회가 참석자들 상호 간 활발한 의견 교환과 기술에 대한 심층적 토의를 통해 규모면에서나 질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에서는 동 행사에 참여하여 '통계로 본 RI 이용현황'을 발표(협회 전승엽 차장)하였다.

핵융합연구센터 초대 소장 신재인박사 선임

세계적인 핵융합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것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핵융합연구센터 초대소장에 신재인 박사가 선임되어 취임식을 10월 5일(수) 오전 10시 30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신재인 초대 소장은 취임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핵융합연구센터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핵융

합공동연구기관(International Fusion Collaboratory)으로 육성하여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필요한 핵융합 원천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kSTAR 완공(2007년)에 맞추어 장치 성능에 대한 국내외 신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스템에 역점을 둘 것이며, R&D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 창출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ITER 사업의 국내전담기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ITER 사업참여 효과를 극대화하며, 내부적으로 국가미래에너지원확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한가죽이라는 유대감으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새롭게 첫 출발선에서 일류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 도전의식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여 핵융합 기술을 한 단계 도약하고자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